

경기도, '문화예술관광분야 뉴딜 프로젝트' 추진

긴급활동 지원·취약근로자 보호 등 3개 분야 착한여행 캠페인, 도예인 상생 특례지원 등 추진

경기도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문화예술관광 분야 종사자들의 위기극복을 위해 긴급활동 지원, 취약근로자 보호, 공공시설 입주단체 임대료·사용료 감면 등 3개 분야에 총 103억원을 지원한다.

장영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4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영상 브리핑을 열고 "도내 문화예술관광 분야는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부터 코로나19까지 재난상황을 맞아 6개월 이상 장기침체에 빠져 있다"며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관광공사, 한국도자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5개 공공기관과 협업체 문화예술관광 분야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문화뉴딜 프로젝트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장영근 국장은 도내 박물관·미술관·공연장 등 문화시설 92%가 휴관하고 3월 영화관객수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90% 가까이 감소하는 등 공연, 전시, 영화는 물론 주요관광지 입장객수 감소에 따라 관광업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며 긴급대책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103억원의 재원은 5개 공공기관이 기본재산 활용 등 재원확보로 35억, 사업재원을 통해 63억원, 임대료·사용료 감면 등을 통해 5억을 마련했다.

기관별 분담액은 경기문화재단

52억원, 경기아트센터 8억, 경기관광공사 22억원, 한국도자재단 13억원, 경기콘텐츠진흥원이 8억원이다.

특히 경기문화재단은 문화예술계 긴급 지원을 위해 기본재산 20억원(자본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는 문화재단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그만큼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이 긴급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 재원을 통해 전업 예술인, 도예인, 영화종사자, 인디 뮤지션, 프리랜서 강사 등 2413명과 예술단체, 관광업체, 편성업체, 관광식당업체, 지역서점, 콘텐츠기업, 공공시설 입주업체 등 1732개 단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먼저 긴급활동 지원 분야로 10개 사업을 추진해 예술인 등 1500명과 1046개 단체를 지원한다.

△신속공모 사업을 통해 위기에 처한 예술인 1000명을 지원하는 '백만원의 기적' △도민들이 유료 관광지와 펜션 등 숙박권 가격을 최대 7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선구매하고 할인금액의 일정액을 관광업체에 지원하는 '착한여행 캠페인' △도예업체에 특례보증을 통해 업체당 최대 1000만원의 자금을 2.8% 내외 저렴한 금리로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는 '도예인 상생 특례지원' △경기아트센터 공연장을 활용해 도내 공연단체를 대상으로 무관중 공연 및 온라인 방송을 지원하는 '방방콕콕, 예술방송국' 등이 주요 내용이다.

취약근로자 보호 분야에서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과 지역서점 배송비용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을 통해 활동이 중단된 예술강사, 영화종사자, 공예인, 인디뮤지션, 미

디어센터 활동강사 등 프리랜서 등 913명과 500개 단체를 지원한다.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사업은 문화시설 휴관과 오프라인 교육·체험 프로그램 취소·연기로 생계 위기에 처한 예술강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과정에 이들을 참여시켜 활동 유지와 생계지원뿐 아니라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예술 자변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지역서점 배송비용 지원은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서점 방문객이 감소하고 인터넷을 통한 도서 배송이 늘어남에 따라 배송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경기도 인종 지역서점 300개소를 대상으로 1개 서점 당 36만원씩 총 1억12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도립 박물관·미술

관, 경기상상캠퍼스, 경기문화창조허브, 입진각 및 평화누리 등 공공 시설에 입주해 있는 186개 업체의 임대료·사용료도 감면할 방침이다.

경기문화창조허브에는 현재 80개, 경기콘텐츠진흥원은 51개 콘텐츠기업이 입주해 있다.

도는 이들 131개 기업의 6개월 분 임대료 1억6570만원을 비롯해 나머지 55개 업체의 1~6개월분 임대료 1억6707만원 등 총 3억3000여 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장영근 국장은 "이번 대책은 나눠 주기식 접근보다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경쟁력 확보와 생태계 유지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별로 TF를 구성해 실행 계획이 수립되는 대책부터 신속히 추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유나 기자

영동 레인보우힐링관광지 입구 튼립꽃으로 단장



충북 영동군 발전과 관광의 핵심축으로 조성 중인 레인보우힐링

관광지 입구가 형형색색의 튼립꽃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군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친 군민을 응원하고 침체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바꾸려고 관광지 진입로 1500m의 터에 1만 포기 튼립꽃을 심었다.

새로 개통한 국도 4호선으로 영동읍 진출입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방문객에게 영동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쾌적한 관광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지역의 성장동력이 될 힐링관광지의 성공적인 조성 바람도 담았다. 덕분에 맛있는 진입 도로변이 화사한 꽃망울을 터트린 튼립과 어우러져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외출과 나들이를 못하는 주민에게 봄의 생동감을 느끼게 해 줘 군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영동군 힐링사업소 고영기 개발팀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활짝 핀 꽃이 군민의 지친 몸과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힐링관광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동 레인보우힐링관광지는 지역의 특화자원인 과일과 와인, 일라이트 등과 최신 관광 경향을 결합한 힐링테마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총 2675억원을 투입한다.

김윤호 기자

보은 바르게살기협의회, 초등학교 방역

바르게살기운동 보은군협의회는 지난 13일 보은군 내 15개 초등학교를 돌며 일제 방역을 진행했다.

'내 고향 보은군과 아이들을 지키자'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방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후 병원, 관공서, 전통시장 등은 수시로 방역이 이뤄지지만, 학교는 상대적으로 소독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이번 소독에는 회원들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방역을 진행했다.

학생들에게 코로나19 예방수칙을 홍보하기 위해 학용품 1400개를 제작해 각 학교에 배부하기도 했다.

전광수 회장은 "고향을 지키고 앞으로 보은군을 지켜나갈 학생들을 위해 작지만 힘을 보태려고 바르게살기운동 동진 회원이 뜻을 모았다"라고 했다.

회원들의 좋은 뜻을 이어받아 보은군에서는 소독약품을 지원하고, 정상혁 보은군수도 방역 활동에 동참했다.

정성현 군수는 "지역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방역 활동



에 참여한 바르게살기운동 보은군협의회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방역으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보은읍주민자치위원회도 이날부터 보은읍행정복지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발열 확인과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코로나19 예방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자원봉사는 매일 오전 9시부터 12까지 2명씩 근무해 24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김홍석 위원장은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민원이 많은 오전 시간에 직원들이 민원업무처리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결정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위기를 함께 이겨나가는 데 동참하겠다"라고 했다.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온라인 상상놀이터 운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현재 휴관 중인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이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집콕 온라인 상상놀이터'를 운영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집콕 온라인 상상놀이터'는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특정 주제의 놀이 작품을 직접 제작, 어린이창의체험관 온라인 소통 플랫폼에서 서로 공유하며 창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야외활동이 제한되고 여러 어린이 관련 시설이 휴관하는 등 어린이들의 안전 체감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마련됐다.

어린이창의체험관은 '상상속의 우리 집' 등 매주 특정 주제에 대한 선풍 놀이 작품을 제작 후 홈페이지, SNS 등에 게재해 어린이와 부모들의 관심·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가 진정돼 체험관을 다시 개방하게 되면 온라인 집콕 상상놀이터에서 소통·공유된 작품들에 대한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유호연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놀이 공간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비대면으로 다양한 놀이작품을 만들며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놀이 문화공간을 만들고자 이번 '집콕 온라인 상상놀이터'를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콕 온라인 상상놀이터' 운영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을 예방하고, 어린이들의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만개한배꽃들

지난 13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관계자들이 봄을 맞아 배꽃에 인공수분하고 있다.

경남교육청, 2단계 온라인 개학 대비 전 초중고 동시 접속 점검

경남도교육청은 2단계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도내 초·중·고교가 13일 오전 10시에 동시 접속해 전체 시스템 성능을 확인하는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를 실시했다.

2단계 온라인 개학 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2학년, 고등학교 1~2학년이다.

이번 동시 접속은 16일 온라인 개학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6일 중3·고3 대상에 이어 이번엔 초·중·고1 대상에 이어 두 번째다. 초등학교 1~2학년 제외 모든 학년이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동시 접속, 원격수업 운영하면서 인터넷의 속도와 플랫폼 구동을 점검했다.

전 초·중·고 동시 접속에 따른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

서는 도교육청의 콜센터 및 교육지원청 에듀테크지원단을 비롯한 관련 부서에서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전체 온라인 개학에 대비, 원격수업 환경 점검과 함께 스마트폰 보급에도 힘쓰고 있다.

13~14일 양일간 일선 학교에 스마트폰 5000여 대와 LTE 무선인터넷 기기 4000여 대 등 총 9000여 대를 교육지원청을 거쳐 일선 학교에 보급한다.

이번에 배부하는 2차분 스마트폰은 충전기 불량으로 인한 방전, 운영프로그램 업데이트 미흡 등으로 학생들이 사용하기 어렵거나 불편한 기기를 교체하는 데 사용된다. 특히 LTE 무선 인터넷

기기는 데이터 제한으로 원격수업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에게 전달해 불안감 없이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도록 한다.

경남교육청은 앞서 이달 초 18개 교육지원청을 통해 스마트폰 3700대, 무선공유기 2500대, LTE 무선인터넷 기기 1000대를 확보해 중3, 고3 학생을 대상으로 1차 지원했다.

또 교사들의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긴급 예비비를 편성해 웹캠, 헤드셋, 펜 테블릿 등 원격교육 소모품 구입비 23억 원을 학교에 지원했다.

정홍규 창의인재과장은 "지난 9일 1단계 온라인 개학은 큰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전했다.

강원도, 교사·학생 손글씨 서체 등 보급

강원도교육청은 교직원 및 모든 도민 대상으로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서체 4종을 보급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보급하는 무료 서체는 강원교육모두체(굵은 글씨·얇은 글씨), 강원교육현역샘체, 강원교육새움체 등 총 4종이다.

강원교육모두체 2종은 강원교육을 대표하는 디지털 서체로서 '행복'과 '성장'을 상징하는 글씨체로 개발됐다.

더불어 지난 연말 도교육청이 개최한 손글씨 공모전에서 당선된 안현욱 교사(춘천 신동초)와 천재음 학생(동해 북평여고)의 손글씨도 당선자의 이름을 딴 디지털 서체로 개발됐다.

4종의 서체는 폰트 디자인 전문업체인 해움디자인이 개발했다.

해당 폰트는 강원도교육청 공식 블로그, 또는 홈페이지 홍보 자료실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한왕규 도교육청 정보담당관은

모두를 위한 교육! 행복 Education for all

모두를 위한 교육! 행복 Education for all

모두를 위한 교육! 행복한 Education for all

모두를 위한 교육! 행복한 Education for all

"최근 온라인개학으로 선생님들 사이에 수업 콘텐츠 저작권 저촉에 대한 걱정이 많아 서체 개발·보급 일정을 더 앞당겼다"며 "교직원과 학생들이 강원교육 서체를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더 좋은 교육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